

# 아! 金大中

## 어제 오후 1시 43분 서거 李대통령 “큰 지도자 잃었다”

대한민국 제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했다. 향년 85세.

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후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“김 전 대통령이 오후 1시 43분 서거하셨다”며 “부인 이희호 여사와 김홍일 총업 홍길 3형제와 며느리 등 가족과 측근들이 임종을 했다”고 발표했다.

박창일 연세의료원장도 서거 후 병원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“김 전 대통령이 폐렴으로 입원하셨지만 마지막에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해서 심장이 멎으셨고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과 폐색전증 등을 이겨내지 못하셨다”고 서거 원인을 밝혔다.

김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폐렴으로 신촌세브란스에 입원,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증세가 호전돼 22일 일반병실로 옮겼으나 하루 뒤 폐색전증이 발병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치료를 받아왔다.

김 전 대통령의 서거에 따라 정부는 유족들과 장례 형식과 절차 문제 등 후속 조치 논의에 착수했다.

이명박 대통령은 “큰 정치지도자를 잃었다”며 “김 전 대통령의 생전의 뜻이 남북화해와 국민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”고 말했고,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도 총격과 함께 심심한 애도를 표시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1924년 1월 신안군 하의면에서 농부인 아버지 김윤식씨와 어머니 장수금씨의 4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목포 북교초등학교

교과 목포상고를 나와 사업을 하다 54년 목포에서 3대 민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70년 ‘40대 기수론’을 내세워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부터 한국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다.

이후 박정희, 전두환 군사정권으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분류된 김 전 대통령은 잇따라 투옥, 납치, 연금되는 것은 물론 사형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다.

특히, 김 전 대통령은 세 번의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의 야권 공조를 앞세워 97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참여정부를 출범시키면서 건국 후 첫 수평적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실현했다.

김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, 6·25 전쟁 후 최대 국난이었던 외환위기를

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정보화 사회를 구현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해방 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열었다.

김 전 대통령은 민주화와 인권신장, 통일운동에 평생을 헌신해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정착, 한반도 평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와 함께 그 공로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.

이를 반영하듯 국제사회도 서거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CNN과 AP통신, 일본 NHK, 중국 신화통신 등 전세계 주요 언론들은 긴급 속보로 서거 소식을 전했다.

김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지난 60년대부터 김대중, 김영삼, 김종필 세 사람이 현실 정치의 중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‘3김 시대’는 막을 내리게 됐다.

/임동욱 기자 tuim@kwangju.co.kr

###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지면 안내

-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면-입원에서 서거까지  | 10면-DJ의 사람들    |
| 3면-광주와 DJ     | 11면-하의도 생가 표정  |
| 4면-DJ의 삶      | 12면-광주·전남 애도   |
| 5면-민족통일과 DJ   | 13면-경제구원투수 DJ  |
| 6면-평화의 신봉자 DJ | 14면-DJ와 지역경제   |
| 7면-외신 긴급 타전   | 16면-예술 사랑한 DJ  |
| 8·9면-화보       | 20면-윤공회前대주교 회상 |

## 나로호 오늘 오후 5시 발사

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역사를 다시 쓸 우주발사체 ‘나로호(KSLV-I)’가 19일 오후 5시께 드디어 우주로 발사된다.

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나로호 발사 하루를 앞둔 18일 나로우주센터 내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“이날 오전 11시부터 최종 리허설을 실시한 결과 발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”며 “19일 오전까지 최종 리허설 점검결과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한 후 오후 1시30분 최종 발사시각을 발표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호 발

사 하루 전인 18일 나로호의 모든 전기적 점검을 비롯해 발사체, 지상설비, 자동발사체계 등 각종 부문에서 발사 예정연습을 당일과 똑같은 순서로 진행했다.

그 결과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6차례 연기됐던 나로호의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. 또, 발사 당일 나로우주센터의 감수 가능성은 매우 낮고 바람도 5m/sec 이하로 불 것으로 관측됐다.

나로호는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고 18분 전 실제 발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. 발사

예정 시간까지 모든 기기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고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도 이상이 없을 경우 발사 15분 전부터 자동 카운트다운에 착수한다.

발사 후 215초 뒤 위성을 감싸고 있던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고 발사체 1단이 분리된 후 고도 300km 지점에서 2단 400kg가 연료를 다 태우고 난 뒤 100여초 후 과학기술위성 2호가 분리된다. 540초가 지나면 발사 성공 여부는 확인되며, 13시간 후 나로호에 탑재된 과학기술위성2호는 지상국인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첫 교신을 하게 된다.

/강필성기자 kps@kwangju.co.kr



謹  
弔

김대중 前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며  
삼가 명복을 빕니다

광주일보사 임직원 일동